

200자 안내

깨끗한 마음만들기

편집부 편저

대원군의 뺨을 맞긴 대장부 이장림, 신체적 장애를 극복한 천재 음악가 베토벤 등 청빈한 생활과 강한 의지로 자신의 고난을 극복한 역사인물들의 예를 통해 그 정신을 본받자는 의도를 깔고 있는 청소년용 도서. 선 여덟개의 일화가 청소년들에게 자양분의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한민사 / A5신 / 254면 / 3500원

新仙道

김영현 편저

정·기·선을 근간으로 하는 선도수련서. 단전호흡의 기초과정 소개에서 벗어나 소주천 대주천 단약 선태신공 출신에 이르는 고급한 과정을 다루고 있는데, 제1부 '선도의 개요'와 제2부 '선도수련의 실제'로 구성돼 있다. 각종 삽화와 사진 등을 곁들여 "상고시대로부터 전해온 전통적 심신수련법"인 선도를 연마하는 방법과 요령을 익히는 데 도움을 준다.

하남 / A5신 / 332면 / 6500원

생활건강

김기영·이복환 편저

우리의 생활과 관련된 건강이론과 실재를 알려 건강한 삶을 누리는 데 기여하기 위해 펴낸 책. 예방의학적 측면에서 건강증진을 위한 적당한 운동과 영양, 그리고 휴식법을 소개하고 있으며, 공해와 성인병 및 약물남용, 그리고 교통사고와 같은 현대인들의 건강을 해치는 새로운 저해요소들의 실태와 그 예방법을 제시하고 있다. 노화의 원인규명과 장수를 위한 학계의 연구성과도 모았다.

정훈 / A5신 / 372면 / 8000원

道理는 세우는 곳에 있다

박순철 편저

현재 여천시청에서 근무하고 있는 저자가 "모든 공직자는 나름대로의 철학을 가지고 정직과 성실로서 궁지와 보람을 가지고 일해야 한다"는 뜻에서 이와 관련된 옛 성현들의 가르침을 한데 모은 것. 동서양의 명언을 비롯해

고려시대와 조선시대, 그리고 대한제국의 청백리를 소개하고 있으며, 권말에 '공무원을 위한 에티켓'과 '신뢰할 수 있는 공무원상'을 부록으로 실었다.

규장각 / A5신 / 196면 / 3600원

마지막 모험

엘모어 레오나드 지음 / 김명렬 옮김

세차레에 걸쳐 '에드가 엘런 포우상'을 수상한 바 있는 세계적 범죄소설 작가의 대표작. 암흑세계의 비정함과 교활한 지혜가 번뜩인다는 평을 듣고 있는 이 소설은, 40대 중반의 색시한 스튜어디스가 무기상인들의 불법매매 대금을 미국으로 밀반입하다가 수사기관원들에게 체포되지만, 기관원들과 무기상들의 추적을 따돌리고 사랑과 부를 함께 얻는다는 줄거리로 돼 있다.

고려원 / A5신 / 358면 / 5300원

孔子

서정기 지음

공자의 일생을 사실적으로 재구성한 전기소설. 세계 4대 성인 가운데 한사람인 공자가 불우한 어린시절과 청년시절을 겪으면서 학문적으로 성장하는 과정과 춘추시대의 정치적 혼란을 비판하면서 현실정치에 관여하는 과정, 그리고 주유천하 후 노나라에 돌아와 고전 6경을 집필하면서 70고령까지 벌인 왕성한 활동이 이 소설 속에 담겨 있다. 경서와 실록 등 탄탄한 자료를 충실히 참고해 전기적 요소와 소설적 재미를 함께 안겨준다.

글 / A5신 / 464면 / 7500원

허허선생 옷벗을라

남정현 지음

작품 「분지」가 반공법에 저촉되었던 지난 65년 이후 처음으로 나온 작가의 작품집. 연작형식을 취해 「괴물체」 「발길질」 「귀향길」 「옛날이야기」 등 모두 8편의 중단편을 묶은 이 소설의 주인공 허허선생은, 우리 역사 속에서 온갖 불행과 고통을 가하는 추악한 원흉을 가리킨다. 재미있는 구성과 통쾌한 풍자가 가득 해 읽는 재미가 뛰어난 것이 장점으로 꼽힌다.

동광 / A5신 / 256면 / 4500원

淨衆無相禪師

이만 외 지음

'역대고승 총서'의 첫째권으로, 초기 선종의 실체를 밝히는 데 있어 빠질 수 없는 인물인 정중무상대사에 관한 글을 한데 모은 책. 남종과 북종에 속하지 않는 독자적인 '정중종'을 발원하고 한국불교와 티베트에 지대한 영향을 끼친 신화적 인물이 정중무상대사. 이 책은 그와 초기선종의 실체를 벗기려는 3년여에 걸친 노력에 의해 발굴된 자료를 집대성한

것으로, 중국 선종의 스승으로 불려지는 한국의 고승을 되찾는 작업이기도 하다.

불교영상회보사 / A5신 / 512면 / 12,000원

러시아 해학별곡

아파나세프 채록 / 서정범 편역

'러시아의 그림'으로 불리는 민속학자인 아파나세프가 러시아 각 지역에 구전되어온 민담과 전설을 채록해 출판한 방대한 저서 「러시아 해학집」을 토대로 재구성한 책. "민중의 입에서 입으로 전해진 그대로의 소박한 이야기"가 아무 꾸밈없이 수록된 이 책의 편역자(경희대 교수)는 "가식없는 민중의 소리가 민화의 형태 속에서 눈이 부실 만큼 서민적인 재치를 풍기며 삶을 더욱 생동감 있게 고동치게 하고 있다"고 말한다.

열린책들 / A5신 / 338면 / 5000원

강좌 인도철학

마이소르 히리아나 지음 / 김형준 옮김

인도철학을 통시적으로 서술하지 않고 베다와 우파니샤드 등 정통사상에서부터 후대의 불교와 자이나교 등의 비정통사상, 그리고 베단타 철학 등 각 학파의 골자를 선정해 정리한 책. 이 책의 원제는 「인도철학의 본질」로 저자의 다른 저작인 「인도철학개설」을 새롭게 축약한 내용을 담고 있다. 산스크리트어의 발음표와 약어표, 용어해설 등이 권말부록.

예문서원 / A5신 / 240면 / 4800원

아들아, 딸아 다시 시작하자

이계운 지음

현재 충북대 교육대학원장이며 청주 YWCA 회장직을 맡고 있는 저자가 어머니로서 교육자로서 그동안 제대로 가르치지 못한 인간의 도리와 사회적 자아성취의 자극, 그리고 모정의 진실과 참회 등을 고백하듯이 쓴 책. '엄마의 참회록'이란 부제를 달고 있는 이 책을 통해 저자는, 자아실현을 위해 고군분투하는 젊은이들을 위한 조언을 아끼지 않는다.

청한 / A5신 / 302면 / 4500원

性 더럽혀진 하나님의 선물

존 화이트 지음 / 문효미 옮김

정신의학자인 저자가 오늘날의 혼전성교, 혼외정사, 수음, 동성연애 등의 문제에 대해 깊은 이해와 동정을 보여주는 책으로서, 이른바 성적 죄악들을 사랑과 용서의 차원에서 어떻게 다뤄야 하는지를 설명한다. 저자는 서문에서 "그리스도인들은 동료의 성문제에 있어 죄를 비난하거나 사림을 피하는 정도에 그친다"면서,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불행한 성적 죄인들에게 손길을 뻗고 싶기 때문"이라고 밝힌다.

아가페 / A5신 / 206면 / 4000원

기독교의 의료윤리

니켈 캐머런 지음 / 권성수 옮김

기독교 의료윤리를 처음 소개하는 책. 히포크라테스 선서 이후부터 현대에 이르기까지 의료윤리가 어떤 변천과정을 겪어 왔으며, 그것이 낙태와 안락사, 인공수정 등 현대의 의료문제에 어떤 영향을 끼쳤는가를 소상히 밝혀 준다. 저자는 이 책의 제6장에서 현대의료의 미래를 전망하면서 "인간생명의 경시는 다시한번 2차대전과 같은 대량학살을 불러올 수 있다"고 경고한다.

햇불 / A5신 / 222면 / 3800원

너 그리고 나의 빈방

이순 지음

'백부의 딸' 「부자실습」 등의 작품을 펴낸 작가의 장편소설. 지난 80년 「여원」지에 연재돼 많은 관심을 끌었던 작품을 수정 보완해 새로 펴냈다. 이 작품은 한 가문의 복잡한 계보로 인해 희생되는 인물들의 회한과 절망이 주류를 이루고 있는데, 주인공 영례의 삶을 통해 작가는 허망과 진실의 본질을 강조한다. 작가는 "사람답게 살아가는 것"에 대해 고민하는 과정을 이 소설에서 보여준다.

정암문화사 / A5신 / 276면 / 4800원

오늘의 생각으로 내일을 기다리지 말라

김용화 지음

만화홍보 전문제작회사인 현대기획의 대표인 저자가 만화 한컷 사용하지 않고 글로만 "기업과 사회 전반에 걸친 의식개혁의 필요성"을 역설한 책. '인생은 길고 기업은 짧다' '유능한 정부 잘하는 기업' '가자 21세기로'로 구성된 이 책에서 저자는, 의식개혁의 0순위는 기업인이며, 잠재적인 트러블 메이커인 일본을 견제해야 한다는 등의 주장을 설득력 있게 펴고 있어 눈길을 끈다.

현대미디어 / A5신 / 246면 / 4800원

추리여행, 수학의 세계

마틴 가드너 지음 / 과학세대 옮김

'이야기 파라독스' 「아하」 등으로 국내독자들까지도 친숙한 저자가 「사이언티픽 아메리칸」이란 잡지에 연재한 수학괴짜들 중에서 흥미로운 부분을 가려 뽑아 수록한 책. 저자가 소개하는 수학의 세계는 우선 재미를 안겨 주지만, 문제를 풀어가면서 논리적 사고를 훈련하게 한다. 청소년들의 수리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줄 책으로 읽힌다. 일종의 '레크리에이션 수학'.

현대정보문화사 / A5신 / 198면 / 3800원

재미있는 정치가 세계

양운선 지음

어린이들을 대상으로 한 이 책은, 그들이 커서 무엇이 되고자 할 때 그 직업에 대해 잘 알 수 있도록 온갖 정보를 담고 있다. '나는 커서 무엇이 될까 시리즈' 가운데 셋째권으로, 막연히 정치가를 희망하는 어린이들에게 정치가는 어떤 일을 하는 사람이며, 역대의 훌륭한 정치가는 어떤 사람들이 있었으며, 정치가가 되려면 지금부터 어떤 일을 해야 하는가를 설명하고 있다. 재미있는 그림도 곁들여 졌다.

동학사/A5신/214면/4000원

계간지

서평문화 (93년 봄)

[머리말] '책'의 해가 아니라 '독서'의 해가 마땅하다(김대환)

[특집] 좌담, 열악한 독서환경의 개선을 위하여(이태동/이종석/김희락/허병두)

[서평] ▲「그 많던 싱아는 누가 다 먹었을까」(성민엽) ▲「운명과 형식」(정현기) ▲영혼의 푸른 수첩(최하림) ▲「패로디 이론」(김성곤) ▲「한국화 감상법」(김병중) ▲「역사의 종말」(이한구) ▲「교육의 본연을 찾아서」(김재은) ▲「정보화 사회와 문화의 미래」(손용) ▲「한국의 대안」(유승삼) ▲「신라·서역교류사」(최근영) ▲「한국고대문화의 흐름」(김병모) ▲「새로운 러시아 사람들」(홍민식) ▲「새로운 변혁의 선택」(박준영) ▲「돈의 이야기」(한기춘) ▲「과학의 개척자들」(김창식) ▲「편집자란 무엇인가」(강철주) ▲「역사 앞에서」(유원동) ▲「한국여성의 의식구조」(정용숙/조옥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A5신/164면/비매물

어느 철학자의 편지 (93년 봄)

[특집 I] 순결, 꼭 지켜야 하는가(황필호)
[특집 II] 종교의 정치참여에는 한계가 있는가(황필호)

[기획연재] ▲미다스 왕의 황금마력(자료실) ▲뉘트리 경제학(강호형)

[알기쉬운철학 5] 논리학이란 무엇인가(편집부)

[정치철학] ▲4·19와 5·16(편집부) ▲세계 시민의 조건(최병권)

[서평] ▲未完에 담긴 완전한 메시지-이양지의 「돌의 소리」를 읽고(임순만) ▲사람은 왜 일을 하는가-황필호의 「자기철학을 가지고 살려는 사람에게」를 읽고(오인문)

생활철학연구회/A5신/102면/2500원

반년간지

민족문화사연구

민족문화사연구소 엮음

[지상토론] 국문학 연구의 이념과 방향(구중

서/조동일/김인환/하정일/신승엽)
[연속기획] 한국 리얼리즘문학의 발전과정 2-18,9세기 시가사의 리얼리즘적 발전(고미숙)

[논문] ▲영웅소설의 통속성 재론(진경환) ▲「황금탑」 연구(한기형) ▲「고향」론(류보선) ▲장용학의 「원형의 전설」론(서영채) ▲옛 사람들의 文集校正(김성철)

[시론] 혁명이 사라진 시대의 문화(김종철)

[쟁점] 19세기 판소리사의 성격(김현양)

[국문학자열전 1] 金台俊의 국문학연구(박희병)

[방문기] 樂山 金廷漢, 그 편안함 뒤에 대쪽(최원식)

창작과비평사/A5신/326면/5500원

시대와 철학

한국철학사상연구회 엮음

[특집] 변증법의 올바른 이해 ▲변증법적 사유 그리고 변증법 연구(이훈) ▲역사변증법과 비판이론(설현영) ▲질 들뢰즈의 반변증법 이론의 구조(박성수) ▲진화론적 자연관과 변증법(우기동)

[논단] ▲생의 윤리와 사회(우명섭) ▲헤겔 자연철학에 대한 연구(이병창) ▲혼돈되어서는 안되는 혼돈이론(Chaostheorie)(최종덕) ▲알튀세와 철학(문성원) ▲루소의 평등주의적 정치철학(선우현)

[윤구병의 존재론] 있음과 없음
[한국사상가평전] 광종석(권인호)

[시철제언] 밥보다 중요한 믿음으로(정운영)
[서평] 「프랑크푸르트학파의 사회비판이론」(박정하)

[시론] 자아와 자본의 냉소(이규성)
[해외철학동향] 한문학자와 중국연구가(양일모)

동녘/A5신/300면/5000원



일이 좋아 일을 찾아 즐기는

최병윤 부장의 야망

최부장은 아직 젊어서겠지요,
—그는 올해 38세입니다.
그와 함께 일해보면
일에 대한 야망이 불꽃 같으니 말입니다.

하긴 요즘 시대가 어느 시대입니까?
책을 만드는 제작과정에서
컴퓨터·반도체·통신을 모르고는 만들 수 없는
정보산업시대이니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는 요즘,
고부가가치 출판과 완벽한 출판을 위해
최첨단 출판시스템(CPTS)을 어떻게 구축하고
이를 활용할 인재양성과 고도의 서비스를
어떻게 개발하느냐를 두고
밤낮없이 고민하고 동분서주하며
사업의 타당성 조사에 여념이 없습니다.

그의 이러한 야망이
하루속히 현실화되어
출판업계 발전의 전기가 될 수 있다면
얼마나 반가운 일이겠습니까?

그의 야망에
여러분의 고견과 지도·편달이
함께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CPTS(Colorful Publishing Total System)에 대해서 설명을 듣고 있는 최병윤 부장

컴피아트가 하는 일

- 편집 / 교과서 · 참고서 · 전문지 · 각종사전 · 어학교재 등
- 교열 / 교정 / 새로 개발한 '한글맞춤법 software'를 활용하므로 정확 무오합니다.
- 디자인 / 표지디자인 · 텍스트디자인 · 일러스트레이션 · 레터링 등
- 제작대행 / 조판 · 제판 · 인쇄 · 제본 등 책의 제작공정을 대행관리하여 납품해드립니다.

컴피아트의 시설

- 편집입력기 15대 • 영문 전용입력기 2대
- 레이저 프린터 2대 • 인화지 및 필름 출력기 1대
- 영문 전용 출력기 1대

지식산업의 파이오니어



서울특별시 종로구 견지동 87-1
TEL : 732-8274 · 738-8622~3
FAX : 739-9356 MODEM :